

고은 불교대하소설

명사산의 밤

새

두령 도리가 이끄는 일행은 7일 동안의 사막 횡단으로 양관(陽關)에 당도하였다. 그것은 좀더 아래쪽의 대천하(大天河) 쪽으로 가야할 길을 잘못들었기 때문이었다.

두 갈래의 주장이 있었다. 대천하를 따라 삼위산(三危山) 북쪽 고트머리로 들어서는 길과 당하(黨河)를 거쳐 월야천(月牙泉)을 따라가는 길이 조정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때 도리가 양관 쪽으로 가서 하룻밤을 쉬도록 하는 길로 바꾸었다.

하지만 도리두령조차도 양관에 머물 생각은 없었다. 차라리 옥문관(玉門關)으로 나아가 거기서 사주(沙州)의 유적이랄까 살던 다음에 목적지에 가도 되는 것이었다.

양관의 하룻밤 천막에서 오랫동안 술을 허락하였다. 술 한 모금으로 가슴이 쿵쿵거리는 사람도 있을 만큼 특한 것을 세 사람에게 한 병씩 배당되었으니 어지간히 취할 수 있는 정도였다.

“오랫만에 고향이 멀어지거라 지옥을 무사하게 건너왔으니까”라는 술 담담의 말은 공치사만이 아니었다.

만화는 사막 한복판에 사흘 먹을 전병만으로 버려두고 온 부두령이 떠올랐다. 아니 그의 심안(心眼)은 이미 이승을 떠나 부두령의 혼령이 아귀중생계에 태어나서 두 손바닥에 돌이 돌아나며 먹을 것을 밟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러자 합두가 그런 만화를 알아치렀는지 한 마디 던졌다.

“이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부두령이 태어나서 수고가 많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보지 못하고 오직 사막의 백골이 되어가고 있는 부두령의 모양만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승이나 저승이나 다 그에게는 푸대접입니다.”

불이는 두령 도리의 부장(副將) 정도가 되어 일행을 이끄는 간부노릇 때문에 두령과 함께 있었다. 천막 안에서 사막의 모래언덕이 들어와 방금 꺼내놓은 가죽 주머니도 그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숙영지가 너무 다급하게 정한 때문인지 사막까지 부근이었다. 모래무덤들은 갖대들이 꽃혀있었다. 그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것이 지난 시절의 봉화대였다.

“좋은 잠자리로군... 잠자다 그대로 숨이 넘어가면 바로 이곳이 무덤이 될터이지...”

해가 질 무렵 여러개의 회오리바람이 여기저기의 허공을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실로 얼떨떨한 풍경이었다.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곳이로군.”

“언제 우리에게 마음놓고 자낼 곳이 있었던가? 봄날 기러기만도 못한 신세인데...”

“하기는...”

불이는 그의 전생인가 현생인가를 분간할 수 없는 기억 가운데서 이 양관을 읊은 시를 떠올렸다. 불교에 귀의하여 농익은 시를 읊으로써 시불(詩佛)이라고 칭하는 바 되었던 왕



72

오지의 여러 민족들에게는 한족이야말로 어느 민족보다 교활하고 악랄했던 것이다. 다음날 강도집단 20마리 낙타행렬은 이따금 양떼가 나타나는 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오아시스지대에 들어 온 것이다.

동북쪽으로 엄청난 크기의 시구를 끼고 그 유려한 모래비탈에 드리워진 그들과 함께 그들의 행로는 평탄하였다. 그러자니 군데군데 짙긴 수양버들 따위가 제법 기

리를 파내려가면 금은보화 7보(七寶)가 파묻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 모랫속을 파헤쳐서 7보를 차지한 사람은 없다.”

“...”

“내가 대원 여러분에게 이 명사산 능선의 모래를 밟게 한 까닭이 있다. 첫째 이 높은 곳에 이르러 사방을 돌아다 보아라. 그대들의 기개가 훨씬 담대해지리라... 둘째 이 만년의 모래산을 울렸다 내려가면



“이 하룻밤이야말로 운명이 바뀌는 때이다
각자의 마음을 동굴처럼 텅 비워라
그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

하지만 명사산 마루에서 하룻밤을 자게 된 일행은 그런 미끄럼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도리가 차례차례로 세 군데의 막사 안에 들어가서 대원들을 살핀 다음에는 밤하늘을 별들로 가득 채운 그윽한 시각이 되자 그 대원들을 다 나오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의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도리가 대원에게 명령을 내렸다.

“할과 칼 따위의 무기를 다 가지고 나오시오!”

이제까지 두령의 입에서 들어볼 수 없던 경어(敬語)였다. 세 대원이 천막 안에 가서 무기들을 몇번에 걸쳐 꺼내고 나왔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따위 무기대신 마음 하나로 살게 됩니다. 이 무기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이요.”

“...”

“자아 모래를 파 웅덩이를 만들어 봅시다.”

도리가 먼저 모래를 파기 시작하였다. 대원들이 서 있다가 하나씩 두령이 하는 대로 모래를 파는 일을 하였다.

래파기는 파는대로 곧 허물어지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모래웅덩이가 생기자 거기에 무기들을 던져넣는 일을

활과 칼을 모래속에 묻은 대원들은 강도집단에서 수행자로 변신했다

유(王維)의 시였다.

낮선 땅 절역으로 가는 양관길은 큰 사막과 요새의 먼지 뿐인데 봄에는 때로 기러기까지 보이지만 만리 먼 길 오가는 나그네는 드물구나 목초는 천마를 따라왔고 포도도 한나라 사철이 가져왔지만 마땅히 외국을 떨게 하려면 구태여 화친만을 고집할 손가

(地城驛驛道 胡沙與塞塵 三危時有雁 萬里少行人 昔聞隨天馬 而轉送東遊 當令外國懼 不敢與親視)

이 불심 깊은 시인인데도 화친보다 전투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가 인상적이다. 사실인즉 한족으로 보면 변세의 오랑캐는 상종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한족을 둘러싸고 있는 변방이나

운을 쓰고 있는 월야천이 내려다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두령은 갑자기 그 험준한 모래비탈을 올라가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에 늙은 대원이 거슬렀다.

“나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는 늙어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대는 늙었으나 그대가 탄 낙타는 젊다. 화살을 맞던지 올라가던지 돌 종의 하나를 택하도록.”

이런 삼엄한 두령의 뜻이어서 늙은 대원도 빌수 없이 급한 비탈을 갈지자(之) 형극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리두령은 그가 불이를 담당했던 경대원이었을 때의 해박한 불교도 지식을 늘어놓는 일과는 달리 매우 결연하고 간단한 말을 내뱉었다.

“도둑의 패거리에서조차 지도자는 달라지는 모양이었다.”

두령이 좀더 큰 소리로 말하였다. “여기가 어디인줄 아는가.”

“...”

“여기가 바로 명사산(鳴沙山)이란 말이다. 이 명사산 모랫속이야말로 모랫속 1백

명(命)이 세금줄은 늘어날수록 죽을 고비에 닥쳐도 죽지 않고 살아날 만큼 오래오래 살게 된다... 셋째 이제부터 그대들은 강도질이나 하는 사막의 악귀와 잡귀가 아니라 이 세계를 사막처럼 정화시킬 수행자가 되기 위함이다...”

“...”

바람이 세졌다. 그러나 이 높은 지대에는 모래나 모래먼지가 없었다. 오직 바람 자체만이 있었다.

명사산 한가운데의 능선을 이루고 있는 인적 없는 모랫판에 천막을 쳤다.

“이 하룻밤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바뀌는 때이다. 각자의 마음을 동굴처럼 텅 비워라. 그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

도리에게 이런 처절하기까지한 통솔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불이야말로 그의 곁에서 새삼 놀랄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로서는 기껏해야 “전생에 무겁게 공부한 사람이로군”라고 허를 내들러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불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도리의 측근이 되어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었다.

천막과 천막 사이에 낙타들을 주저앉혔다. 해가 누엠투엠투하는 오후였다. 모래빛 같은 숫재 눈부신 황금빛이었다. 그런 황금빛 모래산 아래로 파란 월야천(月牙泉)이 길쭉한 반달 모양으로 누워있었다.

그 물은 어떤 소감도 자아내지 않는 무의미의 표상과도 같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오랜 침묵으로 죽어있는 것 같았다.

명사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오아시스 범관 끝은 여전히 신기루의 푸른 바다와 믿을직한 섬들이 떠 있다. 그것을 현실로 착각한 무리들이 끝내 때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대를 지나가는 대상(隊商)이나 구도승 또는 여행자들에게는 충분한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절기에는 이 모래산 전체가 무너져내리는 듯한 소리가 천둥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모래가 우는 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았다.

오래동안 이 명사산의 모래밭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면 역을 면한다해서 단오날은 이 부근의 유목민이나 서로 다른 종족들이 모여들어 모래 미끄럼을 타는 일로 갑자기 은성하게 된다 한다.

서물였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이제까지의 운명이 파묻힌 곳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이제 두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다만 여러분의 친구일 뿐이요.”

“...”

대원들은 그들 자신이 깊이 생각해보려도 없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강도집단에서 전혀 다른 집단으로 바꾸는 일에 약간 어이없었다. 그럼에도 그들 중의 누구도 도리가 하는 일을 거스르지 않았다.

거스르기는 커녕 마치 아내가 지친 지아비의 옷을 벗겨주는 대로 내맡기고 있는 심경이 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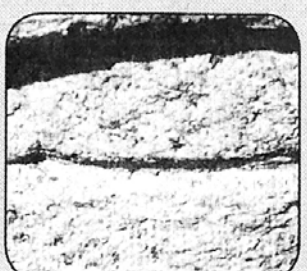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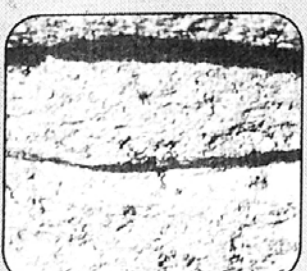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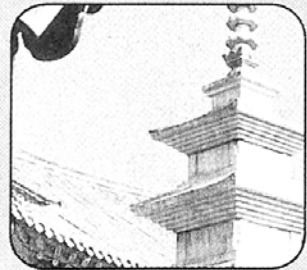
“나와 함께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떠나도 좋습니다.”

이 말에도 대원들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활과 칼 따위는 모래무덤에 던져 그것을 누구에게도 발각되지 않을 정도로 묻었다.

잠든 낙타 한 마리가 깨어나 별들을 쳐다 보았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림·조향숙



현대프로덕션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벽히 하여 불교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절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 현대불교신문의 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디피어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디피어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움의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사찰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기 위해 견제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호감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앙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동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 주소 서울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 팩스 02-375-4143